

DMZ박물관 전시 분석

이기찬*

국문요약

이 논문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DMZ박물관의 전시를 분석한다. DMZ박물관은 스스로를 “세상에 하나뿐인 비무장지대 DMZ를 정확히 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DMZ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 전쟁 전후의 DMZ의 모습과 군사충돌, 사람이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생태적 환경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DMZ를 전쟁이 잠시 멈춘 여전히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적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라보면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 통일 준비 등 박물관의 평화 지향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립 배경, 전시 주제, 지향성은 DMZ박물관이 전시의 주된 대상이자 주제인 DMZ와 DMZ 탄생의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기존 한국전쟁 기념시설과는 다른 서사와 재현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DMZ박물관 전시는 DMZ의 서사와 재현에서 한국전쟁, 전후 DMZ의 모습, 접경지역을 넘어 발생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을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한국전쟁 기념시설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정전협정, DMZ, DMZ박물관, 전쟁박물관, 전쟁기념시설

* 강원대 평화학과 박사과정, 2kichan@gmail.com

I. 서론

강원도 DMZ박물관(이하 DMZ박물관)은 2001년 강원도와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계획의 일부로 구상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관광선 ‘현대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을 출발하여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남쪽에 있는 장전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해를 거듭하면서 육로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금강산관광을 운영했던 현대아산은 2001년 6월 8일 북한과 회담을 갖고 육로관광을 포함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은 이러한 육로관광을 통한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연계해 강원도 고성지역에 남북한 사이의 관광 및 교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DMZ박물관을 포함한 조성 방침이 결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5년까지 교통영향평가, 군 작전성 검토, 기본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2006년 3월 고성군 현내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위쪽 현 위치에 박물관 건축공사를 시작해 2009년 8월 14일 개관했다.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기본계획(2001.08.25.) 수립 당시에는 교류센터, 평화의 문, DMZ박물관 등이 계획되었으나 DMZ박물관 외에 다른 시설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설립 배경을 가진 DMZ박물관은 스스로를 “세상에 하나뿐인 비무장지대 DMZ를 정확히 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¹⁾ 2022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에서 15년 만에 새롭게 채택된 박물관의 정의에 따르면,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²⁾ DMZ박물관의 자기규정과 일반적 박물관의

1) <https://www.dmzmuseum.com/museum/introduce>(최종검색일: 2023/5/16)

2)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번역은 언론, 학술발표 등에서 소개된 것이다). “A museum is a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s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비추어 보면, DMZ박물관의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유산’은 바로 DMZ가 된다. 그리고 DMZ박물관은 박물관의 주요 전시의 내용으로 “6. 25전쟁 전후의 모습, 정전협정으로 생긴 군사분계선과 DMZ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이후 지속되었던 군사충돌[,] 그동안 민간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독특한 생태환경 등을 전시물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DMZ박물관에 담아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목표와 지향점을 “남·북한의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료의 조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연구 등에 매진하여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의 명소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DMZ의 탄생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이 DMZ박물관 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안보관광 시설, 즉 한국전쟁 기념시설 중 하나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DMZ박물관은 위와 같이 스스로를 DMZ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전쟁 전반과 박물관 소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의 승리를 포함한 전쟁, 호국, 안보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전쟁기념’ 시설인 서울시 용산구의 전쟁기념관, 경상북도 영천시의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칠곡군의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 강원도 춘천시의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양구군의 양구전쟁기념관 등 일반적인 한국전쟁 기념시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쟁 시기 거제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포로수용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적인 주제는 전쟁, 호국, 안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DMZ박물관과 같이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지만,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 기념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노근리평화공원(평화기념관), 경상남도 거창군의 거창사건추모공원(역사교육관)과 산청군의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역사교육관)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의 제주4·3평화공원(제주4·3평화기념관) 등이다. 이들은 DMZ박물관(2009)과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기념시설들로 2004년(거창사건추모공원)부터 2011년(노근리평화공원) 사이에 건립되었다. 정호기(2016)는 이 기념시설들을 탈냉전 이후 과거청산 작업의 결과물로 기존 한국전쟁 기념시설들이 외면했던 전쟁의 피해자, 특히 아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https://icom.museum/en/resources/standards-guidelines/museum-definition>(최종검색일: 2023/5/16).

군에 의한 민간인의 집단학살을 추모하는 집단묘지의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그동안 억압되고 은폐된 한국전쟁 시기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기억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 공간과 전시를 통해 드러난 한국전쟁 전반에 대한 재현과 담론은 기존 한국전쟁 기념시설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 기억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정과 편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지만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의 결과물인 DMZ를 주제로 평화를 지향하는 박물관을 자임하고 있는 DMZ박물관의 전시를 분석한다. 한국전쟁 정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상호 접근과 만남, 그리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북긴장 완화에 따라서 DMZ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결구도에서 DMZ는 비록 남북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평화의 의미가 있지만 남방한계선 이남부터는 중무장한 군대가 주둔하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화해구도에서 DMZ는 개발은 물론이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하고 생태가 잘 보존된 공간이자 남북한 사이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공간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공간적 계획과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DMZ박물관도 그 출발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구상의 일부분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DMZ박물관은 남북 화해와 통일, 평화의 관점에서 DMZ를 새롭게 규정하는 시도와 담론이 실제 물리적 장소로 구현된 최초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시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은 DMZ박물관이 한국전쟁과 정전의 결과로 생겨난 DMZ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전쟁, 호국,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한국전쟁 기념시설과는 다른 관점과 지향을 가진 한국전쟁 ‘관련’ 역사박물관으로서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라고 규정하는 전시 서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II. DMZ박물관의 구성과 분석 대상

1. DMZ박물관의 구성

DMZ박물관은 박물관 본관(실내전시관, 엽서쓰기코너, 체험교실, 영상관, 뮤지엄샵/카페, 사무공간), 다목적센터(대강당, 회의실), 야외전시시설, 야외공간(야외무대, DMZ전망테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전시공간은 박물관 본관에 있는 실내전시관과 야외전시 시설이다. 실내전시관은 상설전시실, 특별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로 나눌 수 있는데, 상설전시실은 주제별로 제1~4전시(실), 특별상설전시실은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다룬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와 ‘DMZ에 묻힌 종이폭탄, 뼈라’, 기획전시실은 로비 1곳과 상설전시실 내부 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전시 시설은 대북심리전장비(대북 심리전 역사관 전시공원), 해상 탈북 목선, 야외설치 미술, DMZ철책, 북한 목선/철선, 전차/자주포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전시관의 구조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형태로 관람동선은 임의동선(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동선을 선택)이나 제한동선(동선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지만, 색상, 조명, 안내판, 표제, 전시 디자인물 등의 시각매체의 유도에 따라 동선을 유도)이 아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관람하는 유도동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도동선에 따르면 로비에서 상설전시실로 입장하면서 제1전시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 - (특별상설전시)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 - 제3전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 - 제4전시 다시 꿈꾸는 DMZ - 엽서쓰기코너(평화의 나무가 자라는 DMZ) - (특별상설전시) DMZ에 묻힌 종이폭탄, 뼈라 - 3층 기획전시실 순서로 관람하게 되어 있다. 전시실 구분은 따로 없고 구역만 설정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전시를 건너뛸 수 없게 되어 있다.³⁾

야외전시 시설은 대북심리전 장비에서부터 전차/자주포까지 총 6개의 전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방문객들에게 높은 빈도로 노출되는 요소들은 박물관 본관으로 연결되는 폭이 넓은 오르막 진입로 위쪽 공간과 진입로 맞은편 언덕에 배치되어 있는 전시물들로, 대북심리전장비, 해상 탈북 목선, 야외설치 미술 중 일부가 해당된다. 주차장에서 박물관으로 입장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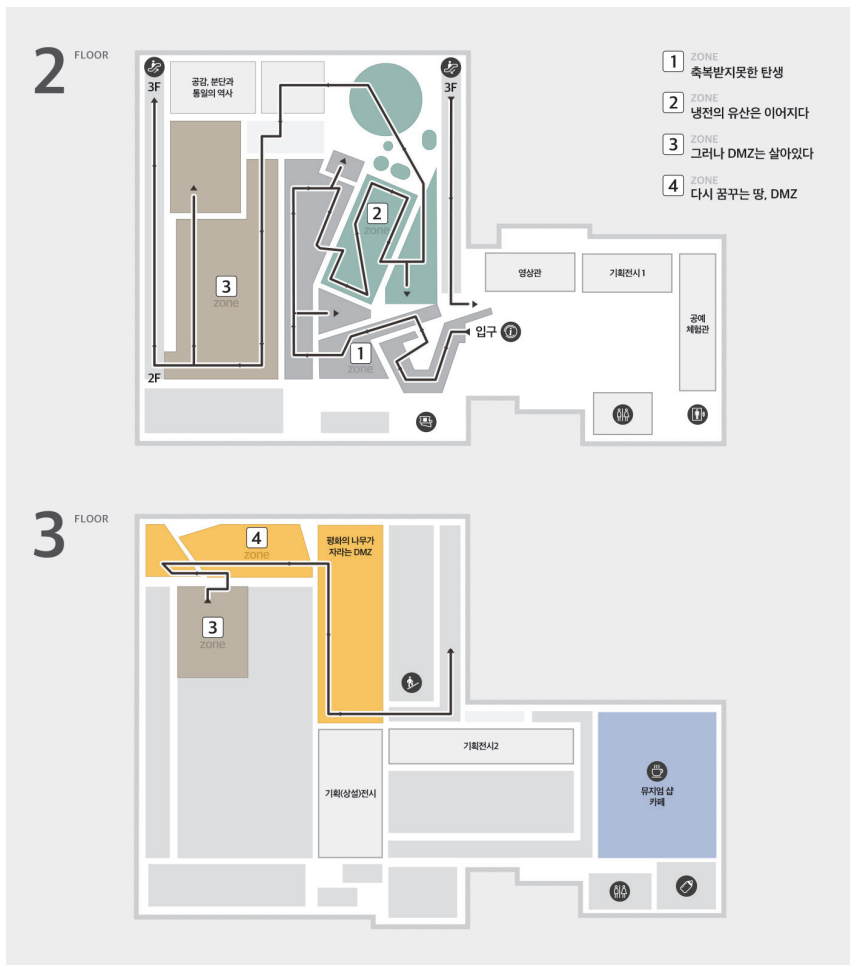
3) 제1~2전시와 첫 번째 특별상설전시(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까지는 2층에 있고 제3전시는 3층에 있어서 한 차례 전시공간 구분(단절)이 발생한다.

는 반드시 오르막 진입로를 거쳐야 하고, 진입로를 통해 박물관 본관과 다목적센터 사이의 공간에 오르면 해상 탈북 목선, 베를린장벽과 동독 경계철망, DMZ(Dream making zone, 이봉수) 등 야외설치 미술 몇 점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진입로 맞은편 언덕에 있는 대형 스피커와 전광판 등 대북심리전장비 또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온다. 그러나 박물관 본관 입구 반대편 야외공간에 있는 DMZ철책, 전차/자주포, 야외설치미술 작품들은 접근성과 노출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박물관 뒤편의 제2주차장에 있는 북한 목선/철선의 경우에는 해당 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표 1〉 DMZ박물관 시설 및 공간 구분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박물관 본관	실내전시관 (2~3층)	상 설 전시실	(제1전시)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
			(제3전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
			(제4전시) 다시 꿈꾸는 DMZ
		특별상설 전시실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2층)
			DMZ에 묻힌 종이폭탄, 뼈라(3층)
		기획 전시실	로비 옆(2층)
			제3전시 내부 별도 공간(2층)
			뼈라 전시실 옆(3층)
	엽서쓰기코너(3층)		
	체험교실(2층)		
	영상관(2층)		
	뮤지엄샵/카페(3층)		
	사무공간(1층)		
다목적센터	대강당		
	회의실	회의실1	
		회의실2	
야외 전시시설	대북심리전장비		
	베를린장벽		
	해상 탈북 목선		
	야외설치미술		
	DMZ철책		
	북한 목선/철선		
	전차/자주포		
야외공간	야외무대		
	DMZ전망데크		

〈그림 1〉 DMZ박물관 전시공간 조감도 (출처: DMZ박물관 홈페이지)



* 위 <그림 1> 조감도는 현재의 실제 공간구성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층 3 ZONE(제3전시) 안쪽에는 기획전시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 조감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3층 ‘기획(상설)전시’라고 표시된 공간에는 “DMZ에 묻힌 종이폭탄, 뼈라” 전시가 특별상설전시로 개관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지만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DMZ박물관 전시분석 대상은 실내전시관 상설전시와 야외전시의 일부이다. 실내전시관의 상설전시는 일반 상설전시와 특별상설전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상설전시는 2009년 개관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DMZ박물관의 핵심적 서사를 구성하는 네 개의 전시로, 제1전시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 제3전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이상 2층), 제4전시 ‘다시 꿈꾸는 DMZ’(3층)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상설전시는 공간 및 관람동선에서 상설전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제2전시와 제3전시 사이에 있는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2층)와 제4전시 다음에 이어지는 ‘DMZ에 묻힌 종이폭탄, 빠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상설전시를 제외한 일반 상설전시만을 분석한다. ‘DMZ에 묻힌 종이폭탄, 빠라’는 제4전시 이후 체험공간인 엮어쓰기 코너 다음에 위치해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비록 빠라가 살포 방식(풍선 이용)의 특성상 DMZ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DMZ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의 경우, 분단과 경계선(경계를 위한 구역과 장벽, 초소 등의 시설과 장비 포함)의 형성 등에서 DMZ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 지향적 측면에서 역시 연관성이 있지만, 박물관 개관 초기 함께 기획된 것이 아니라 9년 후인 2018년 사후적으로 도입된 전시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전시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야외전시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루지 않고 진입로 주변에 배치된 전시물만을 다룬다. 해당 분석 대상은 대북심리전장비, 베를린장벽과 동독 경계철망, 해상 탈북 목선이다. DMZ철책, 북한 목선과 철선, 전차와 자주포 등은 진입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방문객들이 관람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시 분석 서술 순서는 DMZ박물관 관람동선에 따라서 도착 후 박물관 본관에 입장하기 전에 진입로 주변에 있는 야외전시 분석 후 실내전시관의 상설전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DMZ박물관의 DMZ 전시 서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선행연구 중 DMZ박물관을 다룬 연구는 2편으로 매우 적다. 김정웅·유동환(2019)의 연구는 DMZ박물관을 지역, 주민, 박물관(관련 기관, 시설 포함)

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박물관’ 개념인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로 다른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DMZ박물관의 전시를 분석한 연구는 1편밖에 없다. 김정웅(2022)은 DMZ박물관의 전시 특성을 DMZ 탄생 관련 사실적 재현, DMZ의 미래지향적 가치 추구, 남북한 협력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방향성 모색으로 정리하면서 ‘다크뮤지엄’으로서 DMZ박물관의 가능성과 전시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크뮤지엄은 다크투어리즘의 하위개념, 즉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지이자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크투어리즘을 “휴양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관광과는 다른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양진연 2020, 266)이라고 할 때, DMZ박물관을 과연 다크뮤지엄으로 정체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DMZ박물관은 한국전쟁의 비극에 대한 성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와 생명의 땅, DMZ’라는 박물관 모토에서 드러나듯이 DMZ의 평화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와 활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크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개념적 규정 작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크투어리즘 목적지(시설)를 지향하고 이에 맞춰서 전시개선을 한다면, 방문객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준의 다크투어리즘 서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톤(Stone 2006)은 다크투어리즘에도 장소의 진본성(locational authenticity)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마일스(Miles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문 장소가 죽음과 고통의 현장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인지, 정치적 영향과 이념이 얼마나 높은지 등에 따라서 다크투어리즘의 스펙트럼을 여섯 단계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명료한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darkest) 단계부터 가장 밝은(lightest) 단계까지 언어표현에 기댄 임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투어리즘 목적지가 실제로 전쟁, 테러, 재난의 현장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고 전시 서사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역시 박물관의 성격과 방문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학술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4) 마일스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과 다크터어리즘(darker tourism)을 구별하고, 후자를 죽음, 재난, 악행이 발생한 현장으로 전자를 그와 관련된 장소로 설명한다. ‘장소의 진본성’은 다크터어리즘 현장이 가진 특성을 가리킨다(Miles 2002, 1175-1176).

DMZ박물관에 대한 유일한 선행연구는 개념 정립과 이론 검토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작업은 김정웅이 정리한 세 가지 전시 특성-DMZ 탄생 관련 사실적 재현, DMZ의 미래지향적 가치 추구, 남북한 협력과 통일-이 놓치고 있는 전시 내용의 역사적, 맥락적 검토와 분석이다. 위 특성은 제시된 전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시 효과 분석에만 초점을 맞출 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전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DMZ박물관 야외전시 분석

1. 대북심리전 장비와 해상 탈북 목선

1) 주요 전시 내용

DMZ박물관에 도착한 방문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 DMZ박물관의 건물 외관이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DMZ박물관의 특성상 방문객들은 승용차(개별 방문)나 전세버스(단체방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자연스럽게 DMZ박물관 외관에 시선이 닿는다. 건축물 자체의 관점에서 DMZ박물관은 특별한 조형적 메시지나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 않다. 대형박물관으로서 큰 규모의 외관이 먼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그림 2〉 DMZ박물관 전경



(출처: DMZ박물관 홈페이지)

진입로 하단 시작 부분이나 진입로 중간의 계단을 통해서 박물관 본관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전시물은 박물관과 진입로 맞은편 언덕 위에 설치된 대북심리전 장비이다. 이곳은 ‘대북 심리전 역사관 전시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언덕 위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DMZ박물관이 민통선 안에 있고, 해당 전시공원이 마침 박물관 내에서도 북쪽으로 뻗어있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장소적 특성상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전 장비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대형 전광판이다. 이것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을지전망대 지역에서 실제로 운용되었던 장비이다. 그리고 대형전광판 좌우로 확성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역시 강원도 양구군, 철원군 그리고 경기도 문산시 임진각 지역에서 사용한 것들이다. 이 장비들의 정확한 출처와 용도를 모르는 방문객들도 많다. 또한 이것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진입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장비들이 전시가 주는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곳이 DMZ 인접 지역이고 이 박물관은 DMZ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을 방문객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킨다.

해상 탈북 목선은 진입로로 올라온 방문객들이 박물관 본관으로 입장하기 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는 전시물이다. 진입로 우측 다목적센터 옆 공간에 배치된 세 척의 배는 전마선 2척과 목선 1척으로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동해와 서해를 통해 탈북하면서 이용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세 척의 배 가운데에는 해상 북한이탈주민 물품이 있다. 어구와 닻, 플라스틱 물통 등 탈북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어로, 항해를 위한 기본적인 물품들로 때가 타고 녹이 쓴 채 전시되어 있다.

2) 전시 분석

진입로에 있는 대북심리전 장비와 해상 탈북 목선은 개별 전시유물로서의 정보와 의미보다 DMZ박물관이 위치한 DMZ 접경지역의 장소성을 드러내는데 큰 효과를 보인다. 방문객들은 방문 절차상 이미 출입신고소와 검문소를 경유하고, 대개 고성 통일전망대를 먼저 방문하고 난 뒤 DMZ박물관에 온다. 그래서 방문 직전이나 직후 느낄 수 있는 흥분이나 긴장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라 할 수 있지만 대북심리전 장비와 해상 탈북 목선은 이곳이 북한과 가까운 특수한 지역이고 DMZ박물관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과 정보를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시 내용의 전달 측면에서는 대북심리전 장비는 진입로 맞은편 언덕 위에 일종의 배경처럼 전시되어 있기에 세대와 사전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인식된다. DMZ의 특성 중 하나인 남북한 사이의 적대와 대결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유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에 비해서 해상 탈북 목선은 방문객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인상이 거의 일치한다. 낡고 초라한 목선을 보면서 북한 경제와 생활의 후진성을 실감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는 바로 이곳 동해를 통해서도 ‘귀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DMZ박물관 진입로에 있는 대북심리전 장비와 해상 탈북 목선은 ‘평화와 생명’보다는 남북한 체제대결(선전전, 심리전)과 남한의 승리(북한이탈주민들의 ‘귀순’)에 대한 정보와 인상을 전달한다. 비록 DMZ의 장소적 특성, 즉 전광판과 확성기 등의 장비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응한 현장이었고, 해상 접경지역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넘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과연 이 전시물들이 DMZ박물관 진입로에서 처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이 박물관의 모토인 ‘평화와 생명’을 부각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의문이다.

2. 베를린장벽과 동독 경계 철망

1) 주요 전시 내용

진입로에서 박물관 본관과 다목적센터 사이 공간의 야외전시물 중에서 방문객에 따라서 관심, 반응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베를린장벽이다. 이 베를린장벽은 개관 초기부터 전시되었던 것은 아니며, 2018년 4월 독일에서 들여와 설치했다. 또한 베를린장벽 옆에는 동독 경계 철망이 전시되어 있다. 이 철망구조로 된 철책은 베를린장벽이 그러하듯이 동독이 설치한 것이다. 통일 이전 동서독 경계선은 1,393km에 달했으며,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진 베를린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는 동독의 철책과 장애물 그리고 간격을 두고 감시초소가 세워져 있었다. 이 철책은 DMZ박물관과 협력 관계

를 맺고 있는 독일의 포인트 알파 재단(Point Alpha Foundation)과 뢰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Deutsch-Deutsches Museum Mödlareuth)이 제공한 것으로, 실제 철책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이 여행자유화조치를 발표하고 이것이 바로 서독 방송국의 전파를 탄 그날 밤 동베를린 시민들이 몰려나와 베를린장벽 검문소 바리케이드가 열렸고 일부 시민들이 기쁨과 흥분의 표시로 망치와 도끼로 장벽을 부설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방송되었고, 중년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역사적 순간이자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베를린에 있던 장벽은 여행자유화 직후부터 일부 시민들의 적극적 의사표시 행위로써, 또는 소위 ‘월 페커(Wall Pecker)’에 의해 기념과 판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대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베를린이 아닌 동서독 경계 지역에 길게 자리잡고 있던 철책과 군사시설들은 통일 후 독일 정부에 의해서 철거되었다. 베를린장벽과 동독 경계 철망 좌측 아래에는 각각의 전시물을 안내하는 안내 패널이 있고, 간단한 설명들이 제공되고 있다.

2) 전시 분석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1990년 독일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DMZ박물관의 베를린장벽을 알아보고 이것의 함의 또한 인식한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없는 후세대들에게 이 장벽은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베를린장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40대 이상이다. 4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동독 경계 철망을 배경으로 두고 사진을 찍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은 베를린장벽의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물로서 베를린장벽의 의미는 명확하다. 남북한 통일의 모델로 독일 통일이 제시되는 것이다. 독일 통일, 즉 동서독 분단의 해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물은 단연코 베를린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된 베를린장벽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떠올리고,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의 전망에는 동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이 흡수되어야 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베를린장벽과 동독 경계 철망의 안내 패널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서독은 한국과 달리 동독의 장벽과 철망에 대응하는 장애물을 경계 지역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서독을 끌어와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를 설명할 때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독일 통일 이전 서독과는 달리 DMZ의 남쪽에 북한보다 더욱 강력한 철조망과 경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상설전시 부분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DMZ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DMZ박물관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DMZ박물관이 한국전쟁 관련 기념시설들과는 다른 위상과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전시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진입로의 야외전시에서부터 예고되는 것이다.

IV. DMZ박물관 상설전시 분석

DMZ박물관의 상설전시는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그에 더해서 중간(제2전시와 제3전시 사이)과 마지막(제4전시 이후)에 2개의 특별 상설전시가 있다. DMZ박물관은 제1전시부터 제4전시까지를 리플릿이나 홈페이지에서 ZONE 1~4(정확히는 1 ZONE, 2 ZONE, 3 ZONE, 4 ZONE)로 명명, 표기하고 있는데, DMZ의 Zone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ZONE은 전시구역(공간)을 나누면서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제1전시 ‘축복받지 못한 탄생’은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으로 인한 DMZ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는 한국전쟁이 DMZ에 남겨놓은 전쟁의 피해, 흔적, 삶의 변화와 DMZ의 범위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북한의 대남도발을 설명한다. 전시의 연출과 주제가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제3전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는 주로 DMZ의 생태환경과 동물, 역사 유물과 상징적 건축물(승일교)을 통해서 DMZ가 재생의 공간임을 부각시키고, 마지막 제4전시 ‘다시 꿈꾸는 DMZ’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통로이자 자원으로서 DMZ의 가치를 전달한다.

특별상설전시는 위의 상설전시와는 다른 특별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는 두 개의 전시이다. DMZ박물관은 이 두 개의 전시를 따로 범주화하지 않고 있다. 제4전시 구역이 끝나고 이어지는 엽서쓰기 코너

(일명 ‘평화의 나무’) 다음에 나오는 ‘DMZ에 묻힌 종이폭탄, 뼈라’는 한국 전쟁 시기부터 최근까지 남북한이 서로 살포한 심리전단, 속칭 ‘뼈라’를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는 ZONE 1~4와 마찬가지로 2009년 개관 초기부터 조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특별상설전시는 제2전시와 제3전시 사이에 있는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다. 이 전시는 2018년 10월 12일 DMZ 설치 65주년(정전 65주년)을 맞아 개막했고, 포인트 알파 재단과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이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과거 동서독 분단과 통일이라는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 공간은 제2전시와 제3전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DMZ를 소개하는 전시가 있었지만, 이제는 4년 넘게 전시가 유지되면서 상설화되고 있다. 상설전시 분석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제1~4전시를 그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이상 네 개의 전시가 ‘평화와 생명의 땅’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는 결론에서 야외전시 분석내용과 연결하여 검토한다.

1.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1) 주요 전시 내용

‘평화와 생명의 땅 DMZ.’ DMZ박물관 전시관 입구에는 녹슨 철책을 연상시키는 적갈색 금속 재질로 된 벽이 마치 담장처럼 뻗어 나와 있다. 이 벽의 오른쪽에는 DMZ박물관 로고와 함께 ‘평화와 생명의 땅 DMZ’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이 문구는 박물관이 DMZ를 어떤 공간으로 규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왼쪽 옆으로 이어지는 진입 통로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문구가 방문객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제1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이름은 DMZ가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DMZ는 과연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방문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전시관 입구와 이어지는 통로는 조명을 낮추어 어둡게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분위기와 전쟁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 절개한 듯이 사선으로 사진과 화면을 길게 연결하여 통로의 상하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이 사진과 화면에는 광복 직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 사회,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와 있다. DMZ박물관의 전시는 이렇듯 DMZ 탄생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제1전시의 서사는 5개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3>과 같이 전시관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는 제시된 소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전시 패널(텍스트, 사진), 동영상(TV), 유물(복제품 및 추정품 포함)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5개의 소주제는 <표 2>와 같다.

〈그림 3〉 DMZ박물관 제1전시 입구와 안내 패널



〈표 2〉 제1전시 명칭 및 소주제

전시 명칭	소주제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	i) 냉전의 시간 속으로 ii) 비무장지대의 서곡, 휴전회담 iii) 그날의 시간 속으로 iv) 비극의 땅, DMZ v) 그날의 기억, 전쟁의 참상

제1전시의 첫 번째 구역은 ‘냉전의 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요 전시물은 동영상이며, 해당 동영상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경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관련 어느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했음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DMZ박물관이 한국전쟁 설명에서 다른 전쟁기념관과 다른 점은 전쟁의 전개와 양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DMZ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제1전시의 두 번째 구역 ‘비무장지대의 서곡, 휴전 회담’은 첫 번째 전시물로 정전협정서를 제시하고, 전시 패널에서 정전협정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구역인 ‘그날의 시간 속으로’는 휴전협정 조인식과 조인식장을 재현하고 있다. 조인식에 참여한 유엔, 북한, 중국 대표의 발소리를 연출한 음향효과, 휴전협정에 서명한 사람과 시간을 보여주는 글씨 조명, 조인식장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재현물이 그것이다.

네 번째 구역 ‘비극의 땅 DMZ’와 다섯 번째 구역 ‘그날의 기억, 전쟁의 참상’은 DMZ 탄생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DMZ를 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그 탄생이 그러하듯이 한국전쟁과는 떼어내어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재의 DMZ는 남북한 사이에 전선이 고착된 1951년 6월 하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전장이었다. 그래서 ‘비극의 땅 DMZ’에서는 치열했던 고지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1전시 서사의 마지막 부분인 ‘그날의 기억, 전쟁의 참상’은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목과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투사가 아니라 DMZ에 있었던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은 전쟁을 어떻게 체험하고 살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는지가 생활사의 관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시는 녹슨 철모와 지뢰지대를 보여주고, 중앙의 화면에서는 전쟁 시기 구걸하는 어린이가 나오는 등 비참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목격되는 전쟁의 현실을 다소 맛있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시 연출보다 더욱 어색하고 엉뚱한 것은 전시 설명이다.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곳은 찬란한 역사의 중심 무대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역사문화를 꽃 피웠던 곳입니다.

이제 비무장지대 속에 깊이 잠든 역사는
싸늘히 감긴 철책을 풀고 힘차게 깨어나
높이 비상해야 합니다.

- DMZ박물관 제1전시 “그날의 기억, 전쟁의 참상” 전시 해설

위 전시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기 전에 DMZ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 피웠던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전시 연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소주제의 제목, 전시 설명 그리고 전시 연출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 전시 분석

DMZ는 한국전쟁과 휴전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DMZ박물관은 한국전쟁 기념시설이나 군사박물관이 아니라 DMZ를 주제로 하고 있기에 한국전쟁의 시대적 배경과 개전(북한의 남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주요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전달하고 전쟁의 원인, 전개, 주요 전투, 전쟁 영웅, 각종 무기와 전투 장비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제1전시의 5개 소주제 전시에서 가장 비중 있게 연출된 부분은 정전협정 조인식을 다룬 세 번째 소주제 ‘그날의 시간 속으로’이다. 공간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할당되어 있고, 글씨 조명, 음향효과, 조인식장 외관 재현과 인물 모형 등을 배치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는 모습을 방문객들이 조인식장 밖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정전협정 조인과 DMZ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현장에 있는 분위기의 연출을 의도한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관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정전협정서, 회의록 등을 보여주고 있다.

제1전시의 하이라이트인 DMZ 탄생의 원인으로서는 정전협정 조인식 전시는 협정 조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즉 한계와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전

협정문 제4조 60항에서는 정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 등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할 것을 관계 각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3개월이 지나기 하루 전인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열렸다. 또한 1954년 4월 26일에도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다. 비록 1953년 판문점 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지만, 정전협정 조인과 DMZ 탄생 직후부터 ‘평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즉 DMZ가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평화를 위한 공간(완충구역)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DMZ박물관의 메시지인 ‘평화와 생명의 땅’에도 적극 부합하는 것이다.

DMZ의 탄생과 관련하여 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DMZ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삶이다. 네 번째 소주제인 ‘그날의 기억, 전쟁의 참상’에서 “이곳[DMZ 지역]은 찬란한 역사의 중심 무대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역사문화를 꽃 피웠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여주는 사료나 전시는 없다. 제3전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에서 (비록 아쉬운 수준이지만) DMZ 부근과 동해선 남북 철도연결 및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적,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나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DMZ의 ‘상실’이나 ‘회복’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2.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

1) 주요 전시 내용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는 이름 그대로 DMZ에 남겨진 한국전쟁의 흔적들과 전후 남북대결 및 본격화된 동서냉전의 영향 아래 DMZ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남북한 사이의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DMZ박물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관람하는 유도동선으로 되어 있어, 제1전시가 끝나면 바로 제2전시로 이어진다. 하지만 전시실이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내용적으로 구역이 나누어진 것이어서 주의 깊게 관람하지 않는다면 제1전시 ‘축복받지 못한 탄생 DMZ’에서 제2전시 ‘냉전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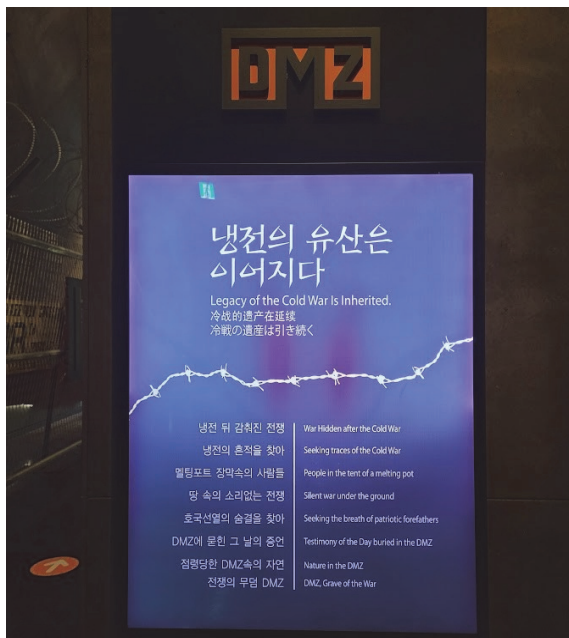
산은 이어지다'로 이동했다는 것을 거의 인지할 수 없다. 그리고 제1~2전시는 둘 다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체제대결의 맥락에서 DMZ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명, 전시 패널, 유물 배치 등의 전시 연출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시 구분이 무의미하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시 주제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전시 이해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제2전시의 서사는 <표 3>과 같이 총 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의 소주제 5개는 연대기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제 전시도 그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제2전시는 안내 패널에 제시된 소주제가 연대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주제 측면에서도 묶여있지 않은 채 다소 두서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전시의 설치순서, 즉 관람순서와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1전시의 소주제는 전시 제목으로 해당 전시 패널 부분에 부착되어 있지만, 제2전시의 소주제들은 전시 제목으로 부착된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관람동선에 따라 연관된 내용을 묶어서 설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제2전시 명칭, 소주제 및 전시 내용

전시 명칭	소주제	전시 내용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	i) 냉전 뒤 감춰진 전쟁	DMZ 군사시설(철책, 표지판) 군사충돌, 테러, 심리전 등 적대행위
	ii) 냉전의 흔적을 찾아	철원 공간 재현
	iii) 뮐링포트 장막 속의 사람들	남한의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
	iv) 땅속의 소리 없는 전쟁	지뢰 및 피해 문제
	v) 호국선열의 숨결을 찾아	전사자 유해발굴
	vi) DMZ에 묻힌 그날의 증언	참전군인 기록, 전사자 편지와 유품
	vii) 점령당한 DMZ 속의 자연	지뢰 매설 DMZ 공간 재현
	viii) 전쟁의 무덤 DMZ	전쟁의 흔적과 유물(탄, 탄피, 철모 등)

〈그림 4〉 DMZ박물관 제2전시 안내 패널



제2전시의 첫 번째 구역에서는 ‘냉전 뒤 감춰진 전쟁’, ‘호국선열의 숨결을 찾아’, ‘DMZ에 묻힌 그날의 증언’, ‘전쟁의 무덤 DMZ’ 이상 네 개의 소주제가 펼쳐져 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전시물들은 정전 이후 DMZ의 전형적이고 상징적 풍경이 된 옛 38선과 철책, 비무장지대, 남북한계선, 통문, (군사)제한구역 등을 알리는 각종 표지판들이다. 통로 형태의 길고 좁은 전시공간 좌우 벽면에 둘러쳐져 있어서 DMZ 바로 앞에 있는 전방 GOP(일반군사전초)에 있는 철책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군용 무쇠솥, 삭도 바구니 등 DMZ 지역 군부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참전군인의 기록(참전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소개, 전사자의 편지와 유품, 그리고 DMZ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릉, 홍천 등 배후지역에서 출토된 녹슨 철모, 탄과 탄피, 피복류 등은 DMZ가 정전 이후에도 한국전쟁의 상처와 흔적이 짙게 드리워진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북심리전 장비와 북한의 도발을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씩 나누

어 6개의 연표와 관련 사진, 유물을 통해서 전시하는 부분에서는 DMZ라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 전후 남북한 사이의 긴장, 갈등, 적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구역은 ‘냉전의 흔적을 찾아’와 ‘멜팅포트 장막 속의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DMZ 접경지역의 도시와 마을을 다루고 있다. 제2전시의 두 번째 구역은 제1전시에서 제2전시로 이동할 때보다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전쟁 전후 철원을 모습을 도시 축소 모형과 철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노동당사, 수도국 급수탑, 농산물검사소 등) 모형이 마치 작은 영화 세트장처럼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시는 철원을 ‘뒤틀린 근대 도시’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북한이 통치하였다. 이곳은 근현대사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20세기 유적지’로 전쟁이 도시를 파괴하고, 냉전이 도시의 재건을 막았지만, 해방 이후 근대건축과 토목사 박물관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사를 제외한 철원의 국가등록 문화재 근대 건축물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각각의 모형에는 이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소주제를 안내하는 패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후 ‘멜팅포트 장막 속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전시는 DMZ에 바로 인접한 DMZ 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남한)과 기정동(북한) 그리고 다른 남한의 전략촌(재건촌)을 다루고 있다.

제2전시의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땅속의 소리 없는 전쟁’과 ‘점령당한 DMZ 속의 자연’이라는 소주제로 지뢰의 문제를 다룬다. 이 두 소주제는 같은 전시 공간 안에 함께 연출되어 있는데 바닥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흙과 풀, 철조망과 지뢰 표지판, 그리고 각종 지뢰가 보이도록 하여 지뢰지대로서 DMZ를 묘사했다. 그리고 그을린 듯한 검은색 나무기둥들과 공중에 떠다니는 은색의 나뭇잎 조각, 지뢰 폭발을 연상시키는 음향과 조명 효과를 통해서 지뢰로 인한 사람과 자연의 피해를 연출하고 있다.

2) 전시 분석

제2전시 ‘냉전의 유산은 이어지다’는 전시 순서상으로는 정전으로 DMZ가 탄생한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참전 기록, 전사자 편지와 유품, 탄과 탄피 등 출토된 전투 장비는 전쟁 기간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전시는 냉전 시기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

발을 보여주는 것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0년씩 묶어 2010년대까지 연표 형식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2000년대의 경우 첫 번째 사례가 ‘2000.6.16.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6·15 공동선언)’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등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적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도발 목록이다. 10년 단위의 연표와 함께 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0년대 제1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3땅굴, 1980년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1990년대 제4땅굴, 강릉 잠수함 무장간첩 침투, 2000년대 제2연평해전, 2010년대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사건 이상 13개의 사건이 각각 사진과 텍스트를 포함한 패널로 설명되고 있다. 제1전시와 제2전시 도입부에서 전쟁 유물을 보여주면서 DMZ를 전쟁의 비극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그렸다면, 제2전시의 중반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역사를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DMZ는 북한의 호전성이 침투하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러한 DMZ를 통한 북한의 대남도발 전시 공간 다음에 나오는 철원과 지뢰지대를 모형, 디오라마 등으로 연출한 공간은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폐허처럼 인식된다.

2전시의 가장 큰 문제는 DMZ의 변화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DMZ의 상징과도 같은 철책은 전쟁 직후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60년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DMZ 지역에서의 잦은 군사충돌, 북한의 침투에 대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군의 군사 지원 등을 통해서 철책이 들어서기 시작했다(한모니까 2019, 2020a). 그리고 철책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지뢰, 클레이모어 또한 추가로 매설되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물러나 폭 4km의 공간은 비무장지대로 해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3~4전시는 제1~2전시와는 전시의 내용과 연출이 바뀐다. 제1~2전시에서 DMZ가 ‘전쟁과 죽음의 땅’으로 묘사된다면, 제3~4전시에서는 박물관의 모토와 의도에 따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전후 냉전 시기에 DMZ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2전시는 이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

1) 주요 전시 내용

제3전시는 DMZ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내용과 전시 연출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제3전시의 특징은 대형 강당처럼 탁 트여 있는 넓은 공간이다. 조명이 밝고 층고도 매우 높아서 제1~2전시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 그리고 <표 4>와 같이 총 4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주제 하나하나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소주제 ‘역사의 땅 DMZ’는 제3전시 왼쪽 벽면에 대형 DMZ 지도모형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서쪽 파주시 임진강 하구부터 동쪽 고성군 현내면까지 구획한 지도모형에는 DMZ의 주요 지형지물들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서부, 중서부, 중동부, 동부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적들을 전시하고 있다. 두 번째 ‘생명의 땅 DMZ’는 전시 공간 정면 상단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DMZ의 자연환경에 대한 영상, 천장의 학 모형, 전시 공간 중간 곳곳에 위치한 DMZ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표본(박제)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표 4> 제3전시 명칭 및 소주제

전시 명칭	소주제
그러나 DMZ는 살아있다	i) 역사의 땅 DMZ ii) 생명의 땅 DMZ iii) 희망과 평화의 가교 승일교 iv) DMZ를 흐르는 강줄기

<그림 5> 제3전시 공간의 DMZ 지도모형(왼쪽)과 승일교 모형(오른쪽)



전시관 우측에는 ‘희망과 평화의 가교’로서 대형 승일교 모형이 맞은편의 DMZ 지도모형처럼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승일교는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한탄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이 다리는 1948년 8월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0년이 훌쩍 지난 1958년 완공되었다. 다리의 북쪽 절반은 전쟁 전 북한이, 나머지 다리의 남쪽 절반은 전쟁 후 남한이 건설했다. 건축 방법과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완공 후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정상적인 다리로 이용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를 잇는 승일교처럼 DMZ가 더 이상 남과 북을 단절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희망(DMZ박물관 홈페이지)”하고 있다. 마지막 소주제 ‘DMZ를 흐르는 강줄기’는 이 승일교 밑에서 전시 공간을 가로질러 DMZ 지도모형으로 이어지는 바닥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잔디와 풀이 보이도록 연출하여 남과 북을 이어주는 동시에 평화로운 DMZ라는 이미지를 자연(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2) 전시 분석

DMZ는 역사, 생태 등 여러 측면에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DMZ만의 독특한 가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제시되는 근거는 분단 이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때 묻지 않는 땅으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시적 자연’ 또는 ‘목가적 자연’의 가치와 이미지는 평화 또는 생명과 개념적 친화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결국 DMZ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조도순(2020)은 이것을 DMZ에 대한 ‘환상’과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DMZ 전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2001년 파주시 장단면의 경의선 철도 구간을 복원하면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DMZ는 2차림으로서의 단순한 산림식생, 장경초지 위주의 묵논습지, 산불의 흔적 등이 주요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DMZ와 남북으로 뻗어있는 백두대간이 만나는 향로봉 인근 지역에는 낙엽활엽수림 원시림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와같이 DMZ의 대부분이 70년 가까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DMZ 내부의 식생은 군사적인 활동에 기인한 빈번한 산불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차천이 초기의 산림이거나 초지 또는 묵논습지로 되어 있다(조도순 2020, 131).”

철원 승일교의 경우, 북한이 절반 정도 건축하다 중단한 것을 남한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희망과 평화의 가교’로 제시되고 있지만, 다리 이름의 연원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승일교는 한국전쟁 당시 영천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현재 승일교가 있는 한탄강을 건너 북진한 7사단 5연대장 김승일(金昇日) 대령을 기려 붙인 이름이다. 그는 북진 후 덕천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이전 북한이 착공했을 때의 이름은 한탄교였다. 이후 1952년 미 공병대가 목조 임시가교로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1958년 12월 현재의 형태로 완공되었으며 북한이 붙인 이름을 버리고 승일교(昇日橋)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승일’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이긴다는 뜻의 승일(勝日) 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와서 승일(承日)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김승일 대령의 이름에서 온 것이 정설이다. DMZ박물관도 김승일 대령의 이름을 딴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전시는 DMZ를 전쟁과 죽음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그 의미와 가치지향을 전환하여 보여주는 DMZ박물관의 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다. 전시 공간의 크기, 모형 등을 통한 연출 등은 그에 걸맞게 되어 있지만, 의미와 가치의 전환을 위한 서사와 논거는 빈약한 편이다. 한국전쟁 이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손길이 미치지 않은, 때 묻지 않은,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된 곳이라는 서사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일례로, 우리 군은 DMZ의 원활한 경계 감시를 위해 벌목, 고엽제 살포, 방화 등 초목 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DMZ를 치유와 회복의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하여 낭만화하는 것은 DMZ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단일한 방식의 DMZ의 낭만화는 제4전시 ‘다시 꿈꾸는 DMZ’에서 제시되는 ‘미래의 DMZ’ 서사와 전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4. 다시 꿈꾸는 DMZ

1) 주요 전시 내용

제4전시는 3층에 위치하고 있다. 2층의 박물관 본관의 중앙현관으로 입장한 뒤 로비의 전시관 입구에서 시작한 제1전시부터 제3전시까지는 모두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의 제4전시는 가장 확실하게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전시이다.

방문객들은 제3전시 관람이 끝나는 출구에서 경사형 무빙워크를 통해서 3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제4전시의 입구를 만나게 된다.

제4전시는 현재 ‘통일’,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 운행’,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미래의 DMZ’의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내용 이전에 제4전시의 공간적 분리와 전시 연출의 차이가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우선 제4전시 공간은 2층의 제1~3전시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3층에 있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4전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한 전시 연출이 완전히 다르다. 제1~3전시 공간은 전시 공간의 배경, 유리 진열장 등 다양한 쇼케이스, 패널, 모형 등이 통일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일관된 흐름 속에서 연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제4전시 공간은 실내설계부터 다르고, 전시 패널도 디자인, 설치 방식과 형태가 다르다. 심지어 전시(실) 이름에서도 오류가 존재한다. 전시 공간 입구에는 제4전시의 이름이 “다시 꿈꾸는 DMZ”라고 되어 있지만(〈그림 6〉 참조), 박물관 리플릿과 홈페이지에는 ‘다시 꿈꾸는 땅, DMZ’로 되어 있다.

〈표 5〉 제4전시 명칭과 소주제 비교

DMZ박물관 홈페이지의 제4전시 소주제	실제 제4전시 소주제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물 금강산관광	통일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미래의 DMZ

〈그림 6〉 제4전시 공간 입구와 내부 모습



해당 전시의 소주제 제시 방식 또한 차이가 난다. 제1~3전시의 경우, 소주제가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전시가 시작되는 지점에 전시명과 함께 같은 디자인으로 된 패널에 쓰여있고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상설전시 페이지에 동일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듯이 제4전시 공간 입구에는 이에 해당하는 패널이 없다. 또한 박물관 홈페이지에 나온 소주제는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 ‘금강산관광’으로 2개는 실제 전시와 일치하지만 2개는 다르다.

현재 실제로 전시된 제4전시의 첫 번째 소주제는 ‘통일’이다. 통일의 당위성,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남북한 대화와 교류협력, 정상회담 등이 총 6개의 전시 패널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새로운 전달 방식은 시도되지 않았고, 다른 근현대사 박물관, 접경지역의 각종 전망대, 전시관 등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두 번째 소주제는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으로 2007년 5월 17일 있었던 동해선과 경의선 시험운행과 남북한 철도연결을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소주제는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남북한 모두 행정구역으로 강원도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해방과 동시에 북쪽에 11개 군 82개 읍면, 남쪽에 10개 군 91개 읍면으로 면적과 행정구역 모두 비슷하게 양분되었다(전상인 1997, 139). 한국 전쟁에서의 북진으로 이른바 수복지구가 포함되어 남강원도의 면적이 넓어졌지만, 북한도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강원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남북 강원도는 본래 하나이며, 유일한 분단도로서 통일에 대한 기여, 교류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 등을 내세우고 있다. 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사례로는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2004)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례,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9.27~29)과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2006.3.2.~5) 개최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7〉 DMZ박물관 〈PLZ 관광자원화 종합 구상도〉 전시 패널



DMZ박물관의 상설전시가 마무리되는 제4전시의 마지막 소주제는 ‘미래의 DMZ’이다. 이 전시에서는 DMZ를 ‘평화·생명지대(PLZ, Peace Life Zone)’로 규정하면서 PLZ사업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PLZ라는 생소한 명칭과 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평화·생명지대(Peace Life Zone)란 DMZ와 민통선 및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생물과 생태복원지구, 생명이 사는 공간,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DMZ 미래구상의 내용은 2009년 8월 DMZ박물관 개관 시기를 고려하면, 2008년 문체부의 PLZ사업 구상 및 발표와 이어지는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⁶⁾ PLZ 다음으로는 강원도 자체적인 강원도 DMZ 지역의 평화적 이용관리 전략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2) 전시 분석

DMZ박물관 상설전시의 마지막에 제시된 ‘미래의 DMZ’는 전시 연출은 물론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실하다.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서 DMZ에 대한 포괄적 비전이나 구상이 뜬금없이 2008년 이후 추진이 중단된

5) 문화체육관광부, “DMZ를 관광 상품화하여 평화와 생명의 공간(PLZ)으로 바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8년 4월 30일 자).

6) 해당 연구용역은 한국관광공사의 『PLZ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이다.

PLZ라는 생소한 이름의 관광계획과 강원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수자원 이용, 해양 협력, 국제 관광자유지대 조성 등의 개별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 DMZ박물관이 설립된 이후에 제기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조성된 ‘DMZ 평화의 길’ 같은 사례는 부분적 교체나 보완을 통해서 박물관 전시 내용에 반영 되기에는 최근의 일이라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DMZ 출입, 이용 등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유엔 군사령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한모니까 2020b). 이러한 내용들은 전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DMZ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은 매우 단일하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소주제 ‘미래의 DMZ’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제4전시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머지 소주제인 ‘통일’,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전시도 소극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다. ‘통일’의 경우, 겨우 6개의 전시 패널로 간단히 다루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문과 함께 전시된 전시물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발행된 정상회담 기념우표에 그치고 있다. 통일 일반 또는 DMZ와 통일을 연결한 의미 있는 사료나 유물, 또는 발굴의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에서는 다른 전시관에서 남북철도의 연결을 다룰 때 흔히 볼 수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관련 내용도 없다. 남북한 교류협력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DMZ보다는 강원도에 국한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실제 제4전시 소주제 중에서 DMZ박물관 홈페이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즉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과 ‘금강산관광’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2009년 8월 DMZ박물관이 개관하기 전에 중단되었고, 이후 한 번도 관광 재개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부터 공단이 폐쇄된 후 재가동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내용에서 부실함 못지않게 공간 연출의 문제도 존재한다. 앞서 주요 전시 내용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2층의 제1~3전시 공간과 3층의 제4전시 공간은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 패널 등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전시 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디자인 요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4전시는 제3전시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른 공간 디자인 및 전시 연출의 변경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4전시의 외형적 완성도 자체가 제1~3전시의 그것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꿈꾸는 DMZ’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전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와 생명의 땅, DMZ’를 모토로 하는 DMZ 박물관은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한국전쟁 기념시설로는 분류되기는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전문박물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비무장지대 DMZ를 정확히 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곳”을 자임하고 있지만, DMZ 탄생의 배경이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의 기억, 기념, 서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즉, DMZ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한국전쟁 기념시설과 유사한 전시 서사나 연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DMZ의 성격과 의미를 과거 한국전쟁의 비극을 품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새롭게 제시하는 것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DMZ박물관의 진입로에 설치된 야외전시물 대북심리전 장비와 해상 탈북 목선은 박물관의 장소성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남북한 사이의 체제대결과 북한의 낙후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베를린장벽 역시 동독의 몰락과 흡수통일을 암시하고 있고, 과거 동서독 사이의 장벽을 가져와 현재 남북한의 장벽이 있는 곳에 단순히 전시하는 것은 두 장벽의 질적 차이를 간과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야외전시의 효과는 방문객들이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발견하고 상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네 개의 전시로 이루어진 상설전시에서 제1~2전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DMZ의 탄생(형성)과 그 결과 DMZ에 남아 있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전투와 무기체계 등을 다루지 않는 등 차별적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전쟁 기념시설 등에서 보여지는 기존 서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정전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화의 가능성, 남북한 모두 남방/북방한계선을 지키지 않고 북상/남하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DMZ 중무장(화)의 역사 등 DMZ박물관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DMZ의 이면들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상설전시 제3~4전시는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전시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전쟁 이전 DMZ의 역사와 전후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으로 제시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 DMZ의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DMZ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는 ‘환상’과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만 기대어 피상적인 인상 차원에서 DMZ의 의미와 가치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북한 교류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전략 제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 연출에서도 매우 부실하다. 일례로 DMZ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유엔군사령부가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DMZ는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지만 정전(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전 또는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 즉 전쟁 종식에 있어서 제한과 가능성을 정전의 물리적 산물인 DMZ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DMZ는 ‘전쟁과 죽음의 공간’으로서의 오명과 한계도 있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서 희망과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DMZ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한국전쟁 기념시설과는 분명히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관련’ 역사 박물관으로서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DMZ의 이면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사로 DMZ를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서 DMZ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실제 DMZ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기찬은 강원대 평화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수년 동안 평화와 시민참여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평화여행사인 협동조합 강원피스투어에서 일하고 있다. 대표 논문/보고서: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군인권센터, 2020), 「기지 반환에서 환경오염까지」(춘천문화원, 2020).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한반도 DMZ: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분단의 산물에서 세계유산으로』(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학술총서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정웅. 2022. “DMZ박물관의 전시특성과 다크뮤지엄으로서 전시개선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207-226.
- 김정웅 · 유동환. 2019. “‘에코뮤지엄’의 위성박물관 개념을 활용한 DMZ박물관 기획전략 연구.” 『통일인문학』 제78집, 5-29.
- 양진연. 2020. “거제포로수용소 다크투어리즘 환경단서와 행동의도와의 영향 관계 연구: 사전배경지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45권 제2호(통권 67호), 263-281.
- 전상인. 1997. “지방화 시대의 분단과 통일: 강원도의 시각.” 『통일정책연구』 제6권 제2호, 137-160.
- 정호기. 2016. “한국의 전쟁지역과 전쟁박물관들의 형성.” 정근식 편.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전쟁기념관 연구』. 과천: 진인진.
- 조도순. 2020. “자연유산 관점에서 본 DMZ 일원의 탁월한 보편가치(OUV) 검토.” 『한반도 DMZ: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분단의 산물에서 세계유산으로』(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학술총서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모니까. 2019.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사학연구』 제135호, 163-206.
- 한모니까. 2020a. “냉전사의 응축 공간 DMZ: 열전에서 ‘평화 없는 평화’까지.” 『한반도 DMZ: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분단의 산물에서 세계유산으로』(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학술총서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모니까. 2020b.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사회와역사』 제125호, 127-171.
- Miles, W.. 2002. “Auschwitz: Museum Interpretation and Darke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1175-1178.
- Stone, P..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An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Journal, 52(2): 145-160.

Abstract

Exhibition Analysis of DMZ Museum

Lee, Kichan^{*}

This paper analyzes the exhibitions at the DMZ Museum in Goseong, Gangwon Province. It defines itself as “a museum that accurately captures, remembers, and records the DMZ, the only demilitarized zone in the world.” It deals with the Korean War, military conflicts after the war, and ecological environments of the DMZ. Above all, the DMZ is represented as a space of peace and life, not as a military buffer zone preparing for war and enunciates its aims of restoring the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With such a background and orientation, visitors would expect the museum to adopt a different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about the DMZ and the Korean War, the cause of the DMZ’s creation,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Korean War memorials. However, the DMZ Museum’s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put more focuses on the Korean War, the post-war state of the DMZ, and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have a very similar approach with that of Korean War memorials.

Key Words: Korean War,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DMZ, DMZ Museum, War Museum, War Memorial

논문투고일: 2023. 04. 27.

논문심사일: 2023. 04. 27.

게재확정일: 2023. 05. 11.

^{*} PhD Student, Department of Peace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kichan@gmail.com